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20. 11

해 남 군
(재)대한문화재연구원

目 次

I. 조사개요	3
II. 전라우수영의 연혁	4
III. 조사내용	11
▣ 1구역	11
▣ 2구역	32
▣ 3구역	40
IV. 유적 경관	45
V. 조사성과	48
□ 출토유물현황	49
□ 조사단의견서	52

1. 조사개요

해남 전라우수영 학술발굴조사는 해남군에서 수립중인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35호)인 해남 전라우수영은 2001년부터 연차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성곽 보수정비사업은 물론이고 전라우수영 망해루지 및 북문지 발굴조사,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시·발굴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해남 전라우수영 유적 조사 연혁

조사종류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 사 내 용	조사기관
지표조사	2001 전라우수영 지표조사	성곽 및 성내 근대가옥 조사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발굴조사	2004 망해루지 및 북문지	망해루지 : 기단석열,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지 유구 북문지 : 도로 조성에 따른 교란으로 미확인. 성곽 트렌치(3개소) : 편축식 성곽, 외황 등 유구 확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시굴조사	2011 문내면 동외리 1037-1	문내면 사무소 진입도로 잔존성곽의 기단부 확인, 내탁식 성벽 축조방법 확인.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발굴조사	2018 문내면 서상리 109-1	망해루 동쪽 성벽 절개구간	마한문화연구원
시굴조사	2018 문내면 선두리 436-3	영창터, 동벽(북문지~충무사), 북벽 치 유구 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2018 문내면 선두리 620-1	객사 및 동헌 추정지 잔존 여부 확인. 동헌 및 내아터 유구 확인.	고대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2019 문내면 동외리1187-4	동헌지 - 건물지 적심 및 담장시설, 계단시설. 남측 성곽지 - 성벽 내측부와 성벽 뒤채움석 확인.	대한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2019~2020 문내면 선두리 590-2	영창 추정지(건물지, 수혈, 주혈, 석열, 아궁이 등)	한울문화재연구원

이번 학술발굴조사 구역은 전라우수영 내의 북쪽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동헌 및 내아터와 관련된 지역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시굴조사 과정에서 건물지 적심, 축대, 석열 등이 확인됨으로써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발굴조사 면적은 2,452㎡이며, 현장조사는 2020년 06월 01일(실조사일수 61일, 허가 제 2020-0726호) 착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유구의 중층 및 중복,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학술자문회의와 해남군의 지원을 받아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발굴조사 기간연장, 실조사일수 28일 추가)를 득하여 2020년 11월 10일까지 실조사일수 89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학술자문회의는 유적 조사방법, 유구 성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 걸쳐 실시하였고 현장공개는 조사완료 시점에 한차례 시행하였다. 1차 학술자문회의는 1지점 내아

터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건물지 등이 중층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간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지점 중층 유구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조사하며 중심 유구에 대해서는 정비복원을 위해 현 상태로 유지한 채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차 학술자문회의는 조사 유구에 대한 정비복원 방안과 조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유적의 구조 및 성격 등을 파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차 학술자문회의는 조사 완료시점에 유적의 성격 및 추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유구에 대한 보완 조사와 더불어 복토에 야외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의 내아 및 동헌터에 대한 발굴조사 경과는 다음(표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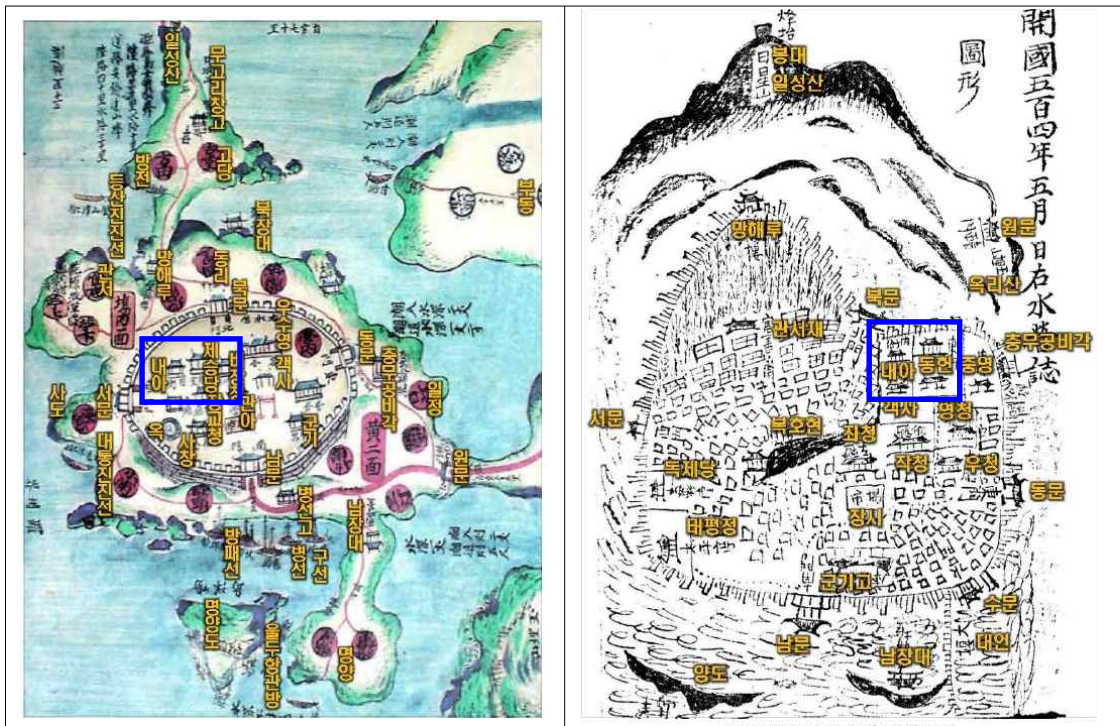
<표 2> 발굴조사 경과

진행 과정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조사 내용	조사기관
시굴조사	2018.09.05~2018.09.21 문내면 선두리 620-1 외	객사 및 동헌 추정지 잔존 여부 확인. 동헌 및 내아터 유구 확인.	(재)고대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2019.12.26~2019.12.31 문내면 동외리 1187-2 외	조사면적 : 3,053m ² 동헌지 - 건물지 기단 및 적심, 계단시설 등 확인. 남측 성곽지 - 성벽 외측 기저부와 뒤채석 확인.	(재)대한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2020.06.01~2020.11.10 문내면 동외리 1187-2 외	1지점 - 건물 7동, 축대, 암거 등 2지점 - 건물 1동, 축대, 출입시설 등 3지점 - 건물 4동, 기단, 보도시설 등	(재)대한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 회의(1차)	2020.07.06.	조사기간 충분한 확보 필요 중심 유구 현재 상태로 유지 상층 유구 조사 완료 후 부분적인 하층조사 실시	
학술자문 회의(2차)	2020.07.31	정비·복원(안) 협의, 조사방향 검토 학술대회 개최 필요	해남군
학술자문 회의(3차)	2020.10.16	유구 구조 및 특징, 유적 경관 검토, 유적 복토방법, 향후 추가 조사 계획 수립	(재)대한문화재연구원
현장공개	2020.11.10	일반인, 전문가, 언론에 현장 공개	해남군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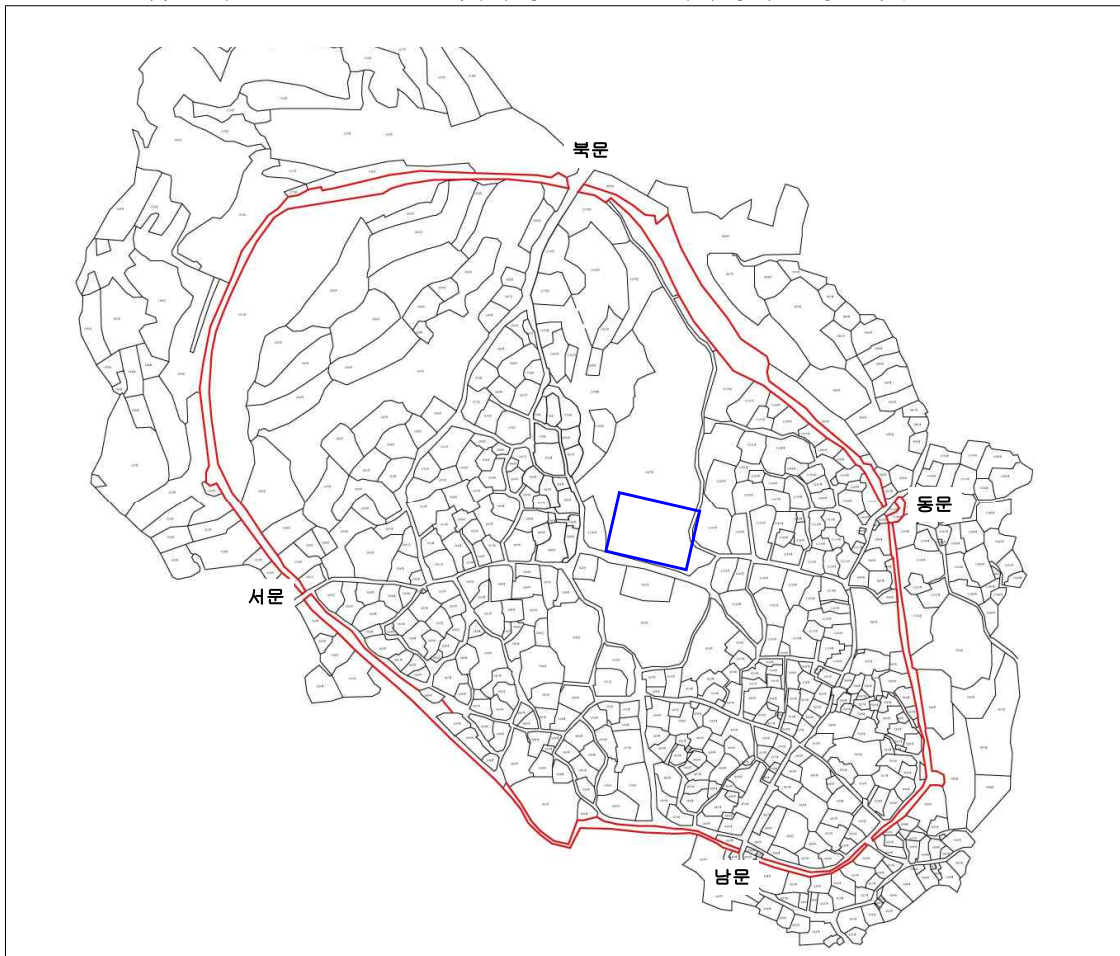
2. 전라우수영의 연혁

해남 전라우수영의 연혁 및 성내 주요 시설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주요 성곽시설물 및 관련 연혁은 『전라우수영지』(1895), 『해남군읍지』(1924)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기록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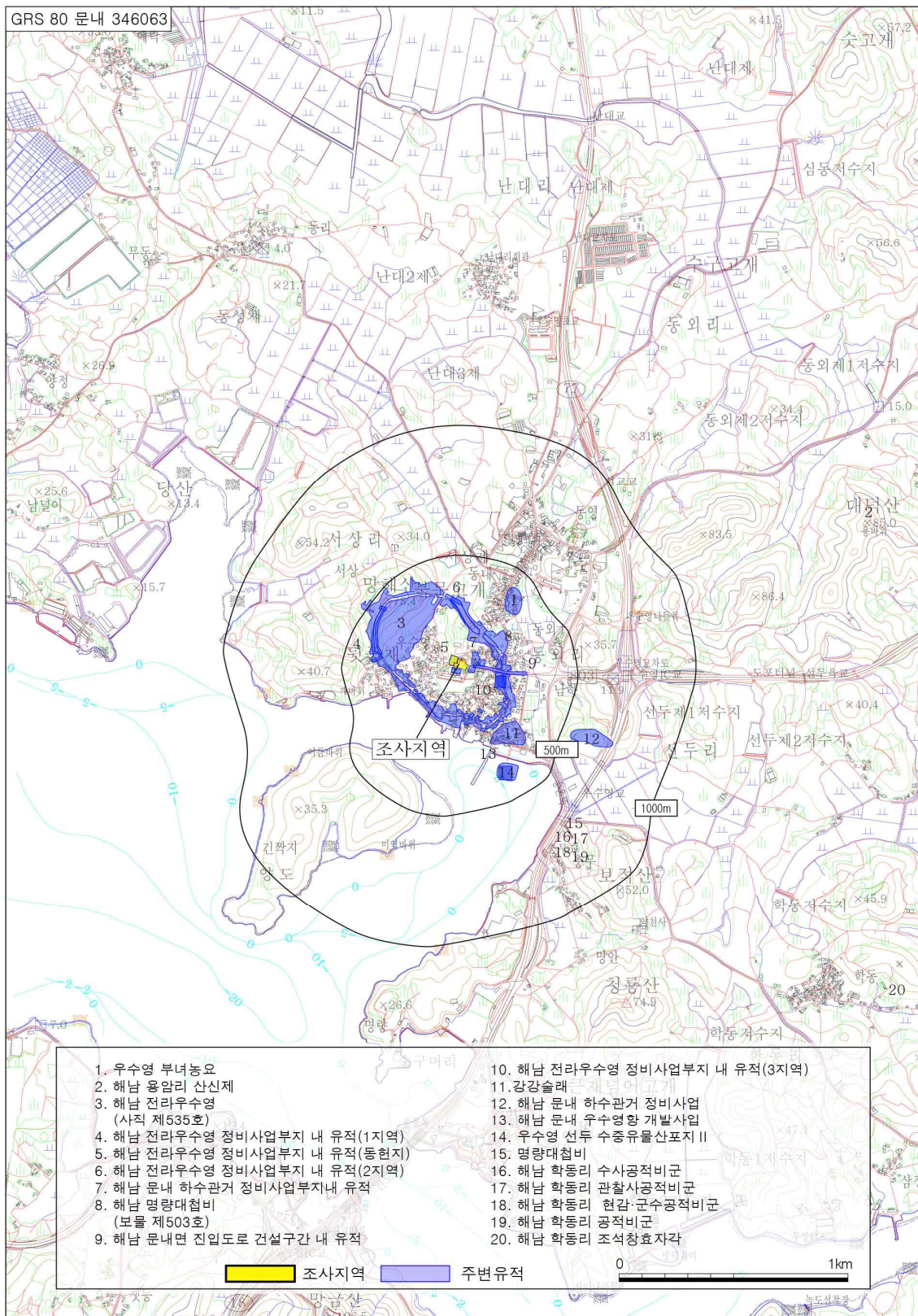
연대	주요내용
1377년(禡王 3)	옥구(沃溝)에 수영 설치- 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부근
1408년(太宗 8)	대굴포(大堀浦)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 설치 - 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
1432년(世宗14)	목포(木浦)에 수군처치사영 설치-현 목포시 하당 부근으로 추정
1440년(世宗22)	황원곶(黃原串)에 수군처치사영 설치- 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1465년(世祖11)	전라우수군처치사영이 전라우수군절도사영(全羅水軍節度使營)이 됨 (『대동지지』 등에는 1464년)
1479년(成宗10)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이 됨 - 내례포(內禮浦)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면서 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이 됨
1481년~1510년	우수영 내 태평정(太平亭)이 건립됨.
1502년~1523년	전라우수영 관할 진성이 축성됨.
1576년(宣祖 9)	절도사 이발(李潑)에 의해 대대적인 중창(重創)이 이루어짐.
1597년(宣祖30)	정유재란시 명량대첩으로 왜적을 물리침.
1632년(仁祖 9)	절도사 황직(黃稷)이 객사인 복파관(伏波館) 중건
1644년(仁祖22)	절도사 남두병(南斗炳)이 남루(南樓)와 격량고(格糧庫) 중건
1664년(顯宗 5)	절도사 전동홍(全東屹)이 객사 중창(重創)
1665년(顯宗 6)	절도사 유비연(柳斐然)이 망해루(望海樓) 건립
1669년(顯宗10)	절도사 이간(李旰)이 남장대(南將臺)와 제언(堤堰) 영건(營建)
1688년(肅宗14)	통제사 이충무공명량대첩비 건립
1895년(高宗32)	칙령 제140호에 의해 폐영
1923년(해남군지)	충무공 비각 중수(重修)
1924년(해남군지)	어사[御使(東軒)], 객사(客舍), 영창(營倉), 작청(作廳), 성곽(城郭), 충무공비각(忠武公碑閣), 제언(堤堰), 정곶사(鼎串寺), 태평정(太平亭), 망해루(望海樓) 건물 등이 잔존. 군기고(軍器庫), 남장대(南將臺), 사대문(四大門)이 없어짐.
1947년	통제사 충무공 명량대첩비 경북궁에서 문내면 학동리 1186-7번지로 이설(移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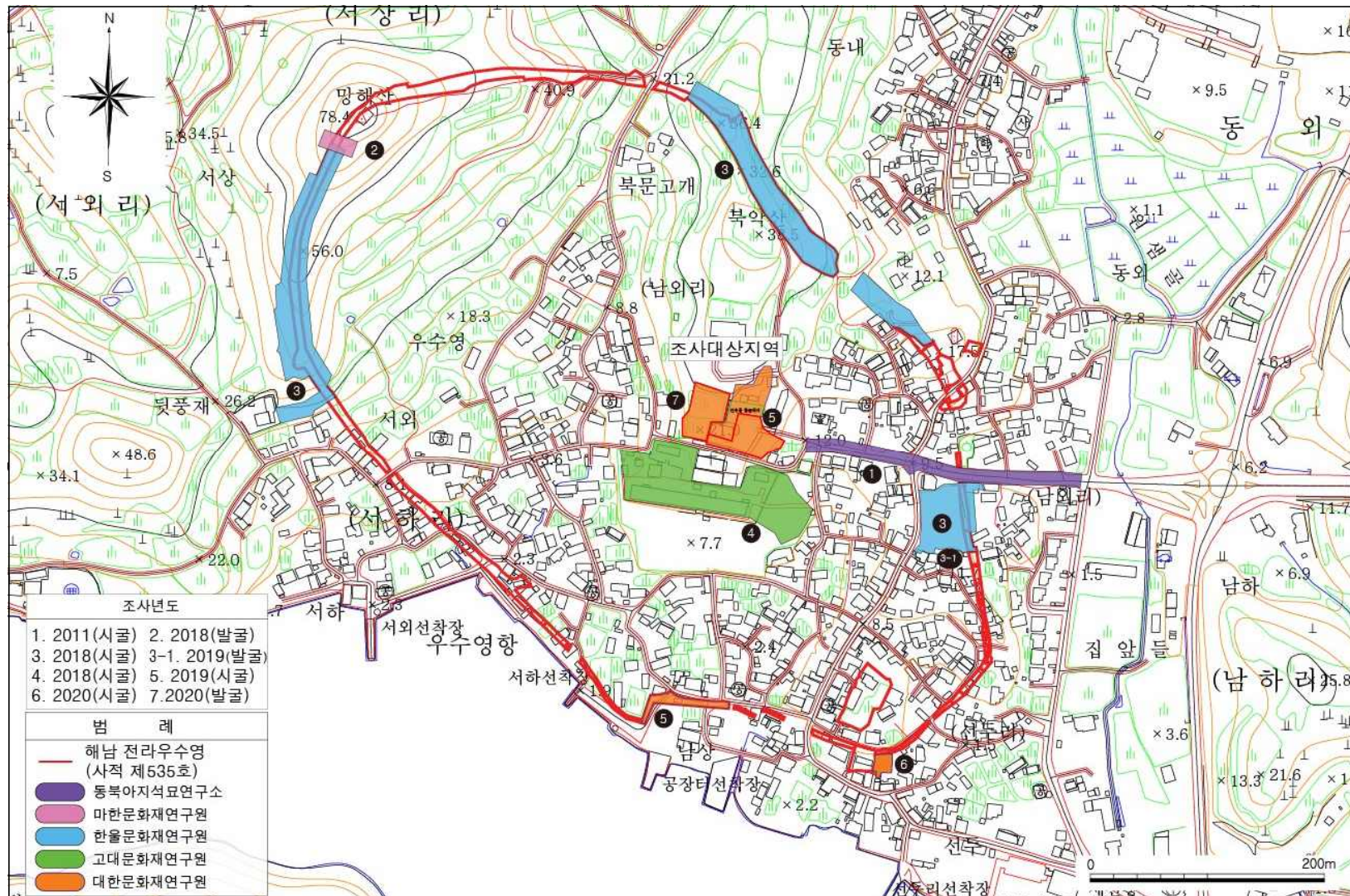
도면 1. 해남현지도(1871년) - 전라우수영 도면 2. 우수영지 도형 (개국 504년 1895년)



도면 3. 전라우수영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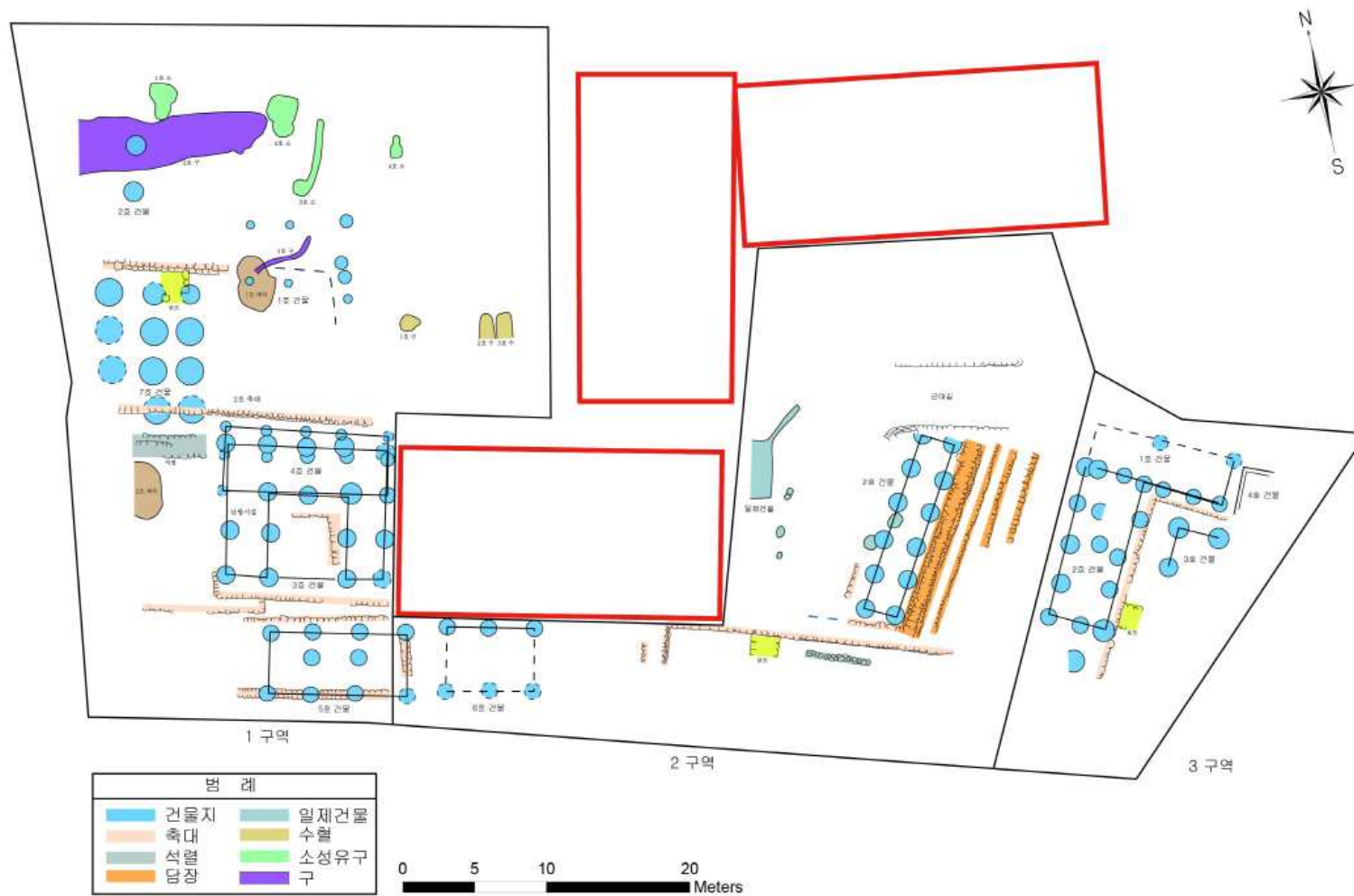
도면 4.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 (1:25,000)



도면 5. 해남 전라우수영 내 조사현황도



사진 1. 조사대상지역 조사 후 원경 (직상방향)



도면 6. 발굴조사 대상지역 유구배치도

3.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87-2번지 일대이다. 이곳은 현재 문내면 생활문화센터 부지에 해당하며, 남서쪽으로 구 우수영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해 있다. 주변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낮아지는 망해산(해발 78.4m)과 북망산(해발 38.8m)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사면부가 전라우수영 일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수영의 중앙부에 해당하며 낮은 능선이 남북으로 이어지고 동·서로는 완만한 사면을 이루지만 후대 건축물이 조성되면서 일부는 지형변화가 심한 편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내아 및 동헌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시굴조사 과정에서 건물지 적심, 축대, 석열 등이 확인되는 곳이다. 추정 내아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원 지형이 남아 있으며 동헌 추정지는 舊 면사무소를 조성하면서 북쪽은 절토, 남쪽은 복토된 상태이며 동쪽 주차장 부지는 화단조성,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상부가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조사방법은 편의상 서쪽 1구역, 중앙 2구역, 동쪽 3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구역은 중앙 독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6개의 피트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나머지 지역은 조사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중앙 독을 설정하지 않고 조사경계 지점의 토층을 관찰하면서 진행 하였다.

■ 1구역

1. 기준층위

기준층위는 중층 문화층이 확인되는 1·3·5Pit의 남북 기준토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북쪽의 1Pit에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Ⅲ층 조사 후에 하강조사를 통해 가장 선행하는 문화층(7호)이 확인되었고, 이후 인위적인 조성 과정을 통해 Ⅲ층 문화층(2호 건물, 보도)이 조성된다. 이후 일정 시간을 두고 자연퇴적과(Ⅳ층)와 인위적인 대지조성층(V층)이 형성되고, 그 위에 상층 문화층(VI층)의 건물지, 수혈, 소성유구 등을 축조하게 된다. 상층 문화층은 층위, 출토유물 등으로 가장 후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중앙부에 해당하는 3Pit에는 가장 선행하는 문화층(4호)이 존재하고, 대지조성과정을 거쳐 Ⅲ층 문화층(3호)이 형성되는데 두 건물지 간에는 동일 공간에서 중복, 중층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하단 기반토에 적심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고 그 위에 축대, 적심, 내부시설 등이 서로 중복되어 확인되고 있다. 이 문화층은 1구역의 전 면적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것으로 파

악되며 적심과 초석이 동일 선상에서 남쪽으로 중창(重創)된 건물지로 판단된다.

남쪽에 해당하는 5Pit에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II층 대지조성 퇴적층을 경계로 하층 1층에는 중대형의 석재들이 일정 범위에 적석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건물지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지만 명확하지 않다. 상층은 건물지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적심, 초석이 확인되고 일부에는 기와를 일정 높이로 깔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쪽과 남쪽에는 상하층의 중층 문화층이 존재하며 건물지 축조 시기는 중앙부에 대지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선축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부에는 가장 넓은 공간은 초석, 적심 간에 상하 중복관계가 확인되며 건물지의 중창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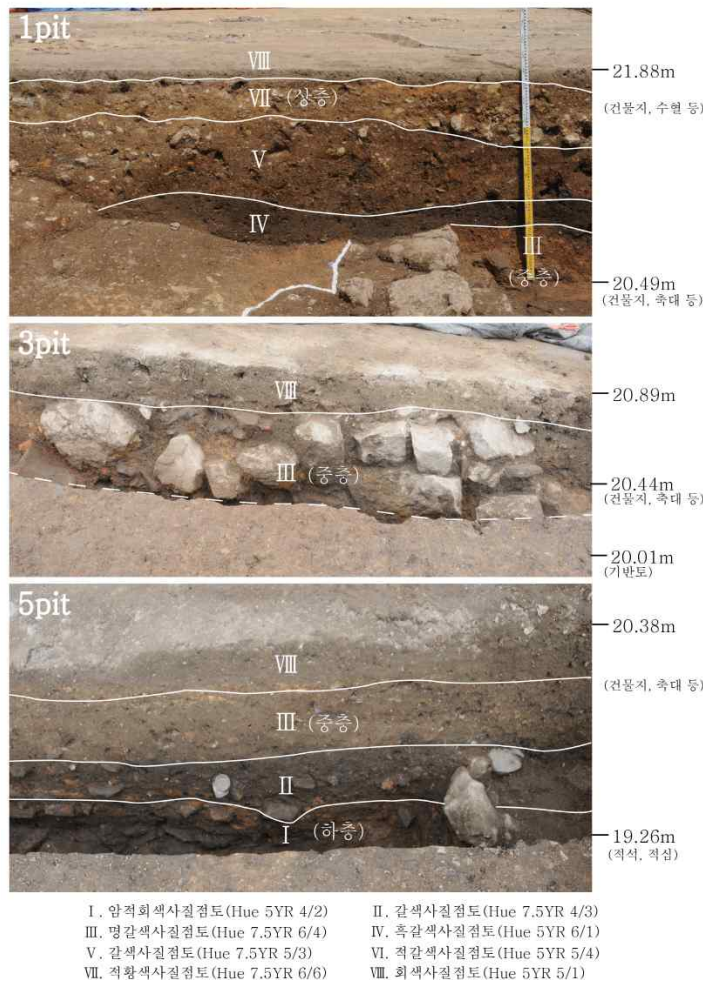


사진 2. 1구역 기준토층 (북-남)

- I 층(암적회색사질점토층) :
하층(적석, 적심 확인)
- II 층(갈색사질점토층) :
대지조성 퇴적층(재, 점토, 할석, 유물포함 퇴적)
- III 층(명갈색사질점토층) :
중층(다짐층 위에 건물지 축조, 건물지 중복)
- IV 층(흑갈색사질점토층) :
자연퇴적층(북쪽 일부에서만 확인)
- V·VI 층(갈색사질점토층) :
대지조성 퇴적층(구, 보축), (암반쇄설물, 점토, 할석)
- VII 층(적황색사질점토층) :
상층(건물, 수혈 확인)
- VIII 층(회색사질점토층) :
표토(일부 다짐토 포함)

2. 유구 내용



사진 3. 1구역 조사 후 전경

1구역 내에서는 건물지 7동, 축대, 석축열, 와열, 수혈, 폐기수혈, 구, 소성유구 등이 확인된다. 건물지 내에는 건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초석(적심), 기단석, 고맥이시설, 암거, 굴뚝, 와적 등이 확인되고 있다. 상층에서는 건물지 1동과 수혈, 구, 소성유구 등이며 하층에서는 건물지 가 중복 내지는 확장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1)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는 상층 유구로 북동쪽에서 확인되며 발굴조사 유구 중 가장 후행하는 유구이다. 유구는 건물지 외에도 소성유구, 적심, 수혈, 구 등이 있다



사진 4. 1호 건물지 및 주변 유구 전경

1호 건물지는 2×1칸 구조만 확인되나 건물지 주변에서 4기의 건물 적심이 확인되고 있어 조금 더 큰 규모였을 가능성도 있다. 적심은 원형 형태로 굴착하여 할석재를 내부에 적석하여 축조하고 있다. 건물지 북쪽편에는 원형 수혈이 확인되는데 내부에 수저(匙)1점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및 적심 전경



적심 세부 전경

사진 5. 1호 건물지 전경 및 출토유물

2) 2호 건물지

2호 건물지는 1호 축대의 북쪽에 위치한다. 북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현재 남북 1칸의 적심만 확인되지만 서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시설로는 남쪽에 기단, 보도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건물지 하층에는 선행하는 구와 구를 폐기하고 대지조성을 하는데 내부에 석재, 소토, 기와편 등이 퇴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성과정을 거쳐 적심을 축조하고 있다. 적심은 원형이며 대지조성과정과 함께 만들어지며 직경 140cm의 할석재로 축조하였다. 적심거리는 290cm이며 축대에서 남쪽 적심거리는 약 4.4m 정도 이격되어 있다.

건물 기단은 남쪽 전면부의 서쪽에만 일부 확인되는데 동쪽으로 수직 굴착면이 기단과 연결되고 있어 후대에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축조방법은 하단에 기초석 1단을 놓고 2단은 들어서 수직으로 횡적하였다. 축대 후면에는 할석으로 폭 72cm 정도로 뒤채움석하여 보강하였다. 기단 크기는 길이 790cm, 너비 110cm, 높이 40cm이다. 보도시설은 기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양쪽에 석축 1단 씩만 남아 있고 석축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일부 석축은 하면에 보축하였다. 크기는 남북 길이 210cm, 동서 160cm이다.



2호 건물지



적심



축대



보도시설

사진 6. 2호 건물지 및 축대 전경

건물지 보도시설 남쪽에는 동서 일렬로 확인되는데 북쪽과 남쪽 건물지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축대는 동·서 구간이 축조방법의 차이에 의해 시간차를 보이고 서쪽 축대부분은 7호 건물지에 후행하고 있다. 축대는 기본적으로 하부에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수직 쌓기 하고 후면에 뒤채움석으로 보강하였다. 선행하는 동쪽부 축대는 들어쌓기 방식으로 2~3단으로 축조하였으며 후행 서쪽부는 기초석 없이 수직으로 4단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활용을 위한 것으로 선행하는 7호 건물지 시점에는 서쪽 축대가 없었다가 7호에 후행하는 2호 건물지 축조사과정에서 축대를 서쪽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축대 크기는 길이 1,680cm, 너비 150cm, 높이 90cm이다.



축대 전경(좌 : 서쪽, 우 : 동쪽)

사진 7. 2호 축대 전경

2호 축대 서쪽 상면에서 암막새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2/3정도 잔존하는 것으로 “(崇禎)..六十...日文禾人李介窩居士官里崔同” 양각되어 있다. 연호는 일부만 보이지만 ‘崇禎’으로 추정된다.

숭정(崇禎)은 중국 명나라의 제16대 황제인 의종(毅宗) 숭정제(崇禎帝) 주유검(朱由檢) 때의 연호이다. 1628년을 원년으로 1644년까지 17년 동안 사용되었다. 실질적으로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이며, 숭정 17년(1644년)은 청나라 세조(世祖) 순치제 때의 연호인 순치(順治) 원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년’ 또는 ‘○周○○[干支]’ 등으로 명나라의 ‘숭정(崇禎)’ 연호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였다고 한다. 명문와에 표기된 숭정(崇禎) 60년은 1628년에 60년을 더한 1688년에 제작된 기와

로 추정된다. 3구역 2호 건물지 내에서 동일 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8. 명문와 전경

3) 3·4호 건물지

3·4호 건물지는 내아 추정 공간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2개의 건물지가 중첩하면서 후행 건물지는 남쪽으로 확대 축조하고 있다. 3호 건물지는 4호에 후행하며 내부에는 기단, 난방시설, 중정(中庭), 적심 등이 확인되고 있다. 건물지 대지조성은 선행하는 4호 폐기 이후 일정한 높이로 소결토-점토-재 등을 교차로 다짐 판축과 유사한 퇴적을 하면서 건물지 기초인 적심을 축조하였다. 건물은 정면 동서 4칸, 측면 남북 3칸 구조이며 모두 적심만 확인된다. 4호 하층 적심 위에 나란하게 축조하고 있어 4호 건물 위에 3호가 중창된 것으로 파악된다. 3호 크기는 적심 기준으로 동서 750cm, 남북 840cm, 적심간 거리는 동서 220~250cm, 남북 260~300cm으로 남북이 조금 더 길다.

기단은 건물지 남쪽에 확인되는데 남쪽 전면과 서쪽에서 북쪽으로 꺾이는 일부 석축열이 남아 있다. 남쪽 전면부 기단은 하면은 석재를 종으로 세워 축조하였고 상부는 횡적하였다. 서쪽 기단은 남서쪽 모서리의 적심부 까지만 잔존하고 있다. 축조방법은 전면부는 할석 1매를 세워 축조하였고 상면은 할석 1~2매를 들어서 횡으로 축조하였다. 서쪽은 할석으로 2단으로 축조하고 약 1.5m 정도 남아 있다. 전면부 크기는 길이 840cm, 높이 100cm이다.

난방시설은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외곽에 작은 할석을 세워 구획하고 상부에는 판석재 할석으로 구들장을 놓고 적갈색 점토로 밀봉하였다. 크기는 길이 355cm, 너비 220cm이다. 아궁이는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판석재 이맛돌을 놓고 양쪽에 판석재 할석을 각 1매씩 세우고 있다. 크기는 길이 60cm, 너비 40cm, 높이 50cm이다.

중정(中庭)은 건물지 남쪽 중앙부에 위치하는 방형의 형태로 3~4단을 축조하는데 현재는 북쪽과 동쪽 석축이 남아 있다. 석축은 정연하지 않고 불규칙하며 할석재를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16세기 전후한 유물이 다량 폐기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불규칙한 석재가 깔려 있다. 크기는 북쪽 길이 3m, 서쪽 3m, 높이 70cm정도 잔존한다.



3·4호 건물지



기단



3·4호 건물지 중북



적심

사진 9. 3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적심



디딤돌



초석



난방시설



기단 전경



기단 정면

사진 10. 3호 건물지 및 내부시설 전경



중정

사진 11. 3호 건물지 중정 전경

중정의 남쪽에는 적심 높이보다 낮은 대형 석재 1매가 있는데 건물의 남쪽 정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에 오르기 위한 디딤돌(섬돌)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은 상층 퇴적층에는 18~20 세기의 유물이 확인되며 건물 내부와 중정에는 16세기대의 백자, 기와, 막새편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4호 건물지는 내아 중앙부에 있으며 7호 같은 선행 건물지이다. 대지조성은 북동쪽은 기반위에 건물이 놓여 있고 낮은 지역에는 대지조성을 하였다. 서쪽 빈 공간에 약 2.5m 깊이로 세 번에 걸친 퇴적과정이 확인되는데 유물도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4호 건물지 당시에는 서쪽과 건물지간에는 상당한 높이차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초석(적심), 기단, 고맥이시설, 난방시설, 암거 등이 확인되고 있다.

건물 구조는 잔존 동서 4칸, 남북 2칸 구조에 북쪽에 짧은 퇴칸이 있다. 동쪽의 잔존 기단석열과 난방시설을 고려할 때 측면 칸은 2칸 구조로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동서 1,030cm, 남-북 650cm이며, 적심간 거리는 동-서 250cm, 남-북 260cm, 북쪽 뒷간거리는 160cm이다. 남쪽 3호 건물지 적심과의 중복관계는 조사 방법상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초석은 직경 70~100cm 정도의 막돌을 사용하였고 북쪽 초석 사이에 기와 고맥이시설이 있다. 적심은 남동쪽에서 보이는데 원형으로 굴착한 후 작은 할석을 점토와 충전하고 있어 3호 적심과는 차이가 있다. 기단은 남동쪽에 할석열 1열만 잔존하고 있다. 3호 중정 축조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난방시설은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3호 난방시설에 선행하면서 높이가 낮은 지점에 설치하고 있다. 중복되지 않는 동쪽에는 대형석재로 외곽을 구획하고 내부에는 구들장을 놓고 점토로 밀봉한 형태이다. 크기는 길이 360cm, 너비 200cm이다. 북동쪽에는 굴뚝이 있는데 수키와 2장을 서로 포개어 비스듬히 세웠고 배연부는 수키와를 아래도 놓고 그 위에 암키와를 덮은 구조이다. 크기는 잔존 남북 길이 120cm, 높이

50cm이다.

암거시설은 건물지 북동쪽에서 동서방향으로 일렬로 확인되는데 동쪽으로 확장된다. 형태는 할석을 세워 벽을 만들고 뚜껑을 덮고 있다. 크기는 길이 290cm, 너비 25cm, 깊이 20cm이다.

출토유물은 건물지 내부에서 백자, 막새, 기와류 위주에 분청사기가 소량 출토된다.



4호 건물



초석



적심

사진 12. 4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난방시설



굴뚝



고맥이시설



암거



사진 13. 4호 건물지 내부 시설



4) 5호 건물지

5호 건물지는 4호에서 남쪽으로 약 1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5호 건물지 하층은 최초 대지조성층을 포함한 2개의 문화층이 존재한다. 5호는 기준토층Ⅱ층 문화층 위에 조성된 것으로 중심건물지 확대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생활면은 적갈색점토층(기와, 백자, 소토 포함)으로 초석 하층면에 해당한다. 건물지에는 초석(적심), 기단, 고맥이벽체, 와적시설이 확인된다.

건물 구조는 동서 잔존 3칸, 남북 2칸이 확인되는데 남서쪽 고맥이시설의 잔존 형태로 보아 동서 4칸 구조로 추정된다. 크기는 동서 10m, 남북 4m 이다. 초석은 북쪽에 덩벙초석이며 적심은 남쪽에 적갈색 점토를 굴착한 후 석재를 적석하는 형태로 확인된다. 중앙에는 와적시설이 잔존 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초석이 확인되고 있다. 적심 거리는 동서 250cm, 남북 400cm, 중앙부는 적심 간격은 280cm이다. 적심 크기는 70~100cm 이다.

기단은 북쪽에 확인되는데 하단에 할석 1매를 종적 일렬로 세우고 들어쌓기 방식으로 1~2단의 할석을 횡적하는데 3호 축조방법과 동일하다. 크기는 동서 잔존 길이 1,040cm, 높이 90cm이다. 와적시설은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장방형 형태이다. 외곽에 할석을 세워 구획하고 내부에 기와를 일정 높이로 깔고 점토다짐 하였다. 크기는 동-서 길이 180cm, 남-북 길이 70cm이다. 고맥이벽체는 남쪽과 동쪽에서만 확인되는데 동쪽은 할석을 양쪽에 세우고 내부에는 점토를 채워 넣는 방식이며 남쪽은 할석과 기와를 이용하여 20cm 높이로 적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다.

출토유물은 기단내부나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기단내부는 1617세기 백자, 기와 등이 혼용되어 있고 와적시설 주변에 17세기대의 백자가 출토되었다. 건물지 대지조성층에는 상평통보, 북동쪽 고맥이벽체 주변에서 우수(右水)명 백자도 출토되었다.



5호 건물지 전경



초석



기단

사진 14. 5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적심



와적



고맥이벽체



출토유물

사진 15. 5호 건물지 내부시설

5) 6호 건물지

6호 건물지는 5호 건물지 동쪽에 위치하며 5호 건물지와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이곳은 후대 건물지나 축대 조성과정에서 교란이 심한 곳이나 건물지는 적심 일부가 확인된다. 대지조성은 남쪽 토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5호 생활면이 6호 건물지 까지 연결되고 있어 동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물지 구조는 남쪽 토층의 적심흔을 포함하여 동서 2칸, 남북 1칸 구조이다. 크기는 잔존 동서 5.5m, 남북 4m이며 적심간 거리는 2.8m이다. 적심은 원형 형태로 기반토 까지 굴광하여 내부에 석재를 채워 넣어 축조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적심

내부에서 기와, 백자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6호 건물지 전경



적심

사진 16. 6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6) 7호 건물지

7호 건물지는 내아터 건물 중 선행하는 것으로 2호 건물지 하층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 대지조성은 동쪽은 기반토 위에 적심을 축조하고 서쪽으로는 암갈색토에 유물편과 함께 다짐조성 한 것으로 파악된다. 7호 건물지 적심석의 생활면에는 교차로 다짐토축한 흔적이 확인된다.

건물지 내에는 초석과 적심이 확인된다. 초석은 적심5호 건물지 동쪽에 위치하며 5호 건물지와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이곳은 후대 건물지나 축대 조성과정에서 교란이 심한 곳이나 건물지는 적심 일부가 확인된다. 대지조성은 남쪽 토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5호 생활면이 6호 건물지 까지 연결되고 있어 동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물지 구조는 현재 동서 2칸, 남북 3칸으로 확인되며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건물지 잔존 크기는 동서 4.5m, 남북 7.5m이며 적심간 거리는 2.5~2.6m이다. 초석은 적심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50~80cm의 덩벙초석을 이용하고 있다. 적심은 작은 할석을 (타)원형 형태로 정연하게 돌려 축조하고 있다. 적심 크기는 140~180cm로 상당히 큰 규모이며 4호 건물지 적심 크기와 유사하다. 출토유물은 평기와에 근세겨진 기와와 함께 분청자, 초기 백자, 기와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7호 건물지 전경



적심



출토유물

사진 17. 7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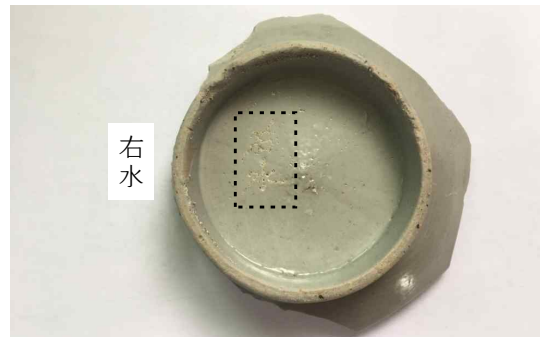
7) 기타유구

1구역 내에는 건물지 이외에는 수혈, 소성유구, 구, 석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수혈은 상층 북동쪽에 치우쳐 3기가 확인되는데 내부에 별도의 시설 없이 기와, 도자기, 할석재 등이 퇴적되어 있다. 2호 수혈 내에는 우수(右水)명 백자가 출토되었다. 소성유구는 북쪽에서 4기가 확인되는데 동쪽 3호를 제외하고 오투기형태를 하고 있다. 내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아궁이부를 시설하고 2호는 이맞돌이 없어져 있다 내부에는 기와가 다수 출토되고 벽면과 바닥은 소결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아궁이부 내부 바닥에는 재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구상유구는 건물지 북쪽에서 동서로 확인되는데 2호 건물지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층위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내부 시설은 없고 석재, 기와, 자기편 등 유물이 상당수 퇴적되어 있는데 바닥면까지 특히, 서쪽에 집중되어 노출되었다. 석열은 2호 축대 남쪽, 4호 건물지 서남쪽에 확인되는데 건물 조성과는 관계없이 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석열을 동서로 1단 축조하여 토사밀림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적열은 남쪽부에서 노출되는데 암키와를 2~3단 높이로 쌓고 후면에 적갈색점토 등으로 다짐 퇴적한 것으로 보인다. 기와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수혈 2기가 확인되는데 1호는 수혈을 파서 폐기하였고 2호는 대지조성 퇴적과 동시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2·3호 수혈



‘右水’ 銘 백자



소성유구 4호



소성유구 2호



소성유구 1호



구상유구 전경



와열



기와 폐기장



석열

사진 18. 기타 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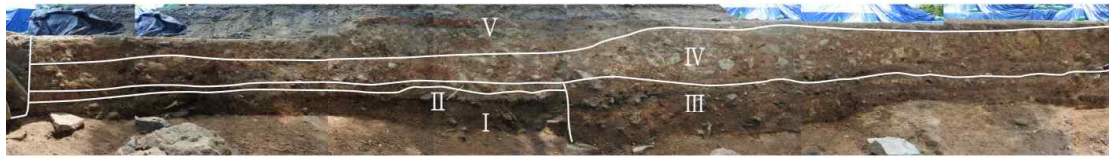
▣ 2구역

2구역은 추정 동헌터의 동쪽에 해당하며 1·3구역과는 담장, 축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행각 건물 1기, 기단, 담장, 동·남쪽 축대 2기, 남쪽 보도 1개소, 일제강점기 건물지 1기, 출입시설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1. 기준층위

2구역 기준층위는 일제 건물지, 근대 건물 및 마당 조성, 나무 식재 등으로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 서쪽은 일제에서 현재까지의 층위가 남아 있으며 동쪽으로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하여 층위가 남아 있다. 2구역은 서→동으로 경사져 있는데 서쪽의 평탄지에는 일제 건물지 조성으로 조선시대 층위가 훼손되어 있고 동쪽은 사면부를 대지조성 한 후 조선시대 문화층이 잔존하고 있다. 북쪽은 근대 면사무소 하층과 진입로 길이 확인되고 있다.

기준층위를 살펴보면, 최하층 건물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층(I층)- 건물지 조성 층(II층)- 일제 건물지 조성 층(III층)- 근대 복토층(IV층)- 표토층(V층)순이다.



- | | | |
|--|------------------------------|------------------------|
| I 층 : (암갈색사질점토층)
대지 조성층(적심) | III층 : (암적갈색사질점토층)
일제 건물층 | V층 : (명갈회색사질점토층)
표토 |
| II 층 : (적색사질점토층)
건물지 조성층(생활면)
(점토, 유물포함) | IV층 : (명회색사질점토층)
근대 복토층 | |

사진 19. 2구역 기준토층 (동-서)

2. 유구 내용

조선시대 건물지는 축대 및 담장에 의해 구분되는데 동쪽에는 건물지 담장과 경사면에 남북 방향의 계단형 축대가 확인된다. 담장이나 축대는 남쪽 축대와도 연결된다. 남쪽 축대는 동서로 확인되는데 서쪽의 1구역 5호 건물지의 동쪽에서 남북(┐형태)으로 꺾어 남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2구역에서 확인되는 축대, 담장 등은 동헌, 내아터를 구분하는 유구로 판단된다.



사진 20. 2구역 조사 후 전경 (직상방향)

1)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는 동쪽에 위치하는데 낮은 경사면을 수평으로 대지조성 한 후 축조하였다. 건물지 기단은 서쪽 일부에서 1단이 확인되며 남쪽은 동쪽 담장과 연결되어



건물지 전경 (직상방향)



초석



적심

사진 21. 2구역 1호 건물지 전경 및 내부시설

있다. 기단석은 1단의 할석을 횡적하여 축조하였다. 크기는 동서 축380cm, 남북 240cm이다. 건물 구조는 동향이며 구조는 정면 잔존 남북 5칸, 측면 동서 1칸 구조이며 출입시설 반대편의 초석을 포함하면 남북은 8칸 구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크기는 동서 250cm, 남북 1,850cm이다. 적심은 모두 원형이며 직경 100~110cm, 적심간 거리는 250cm~255cm이다. 축조방법은 원형으로 굴착하여 할석재를 일정 높이로 채워 놓거나 외곽에 석재를 나란하게 놓은 후 내부를 적갈색 고운점토와 석재를 함께 충전하였다. 담장은 건물지 동쪽에서 남북, 동서방향으로 확인된다. 축조방법은 동쪽은 다짐퇴적층 위에 외부는 기초석 2매를 계단식으로 놓고 내부는 기초석 1매를 놓은 후에 할석재를 수직으로 1~2단 정도 횡적하였다. 남쪽은 동쪽 담장에 각을 맞춰 남쪽 축대 위에 조성하고 있다. 현재 2단 정도 남아 있는데 기초석을 놓고 들어서 1단 정도 축조하는 것으로 동쪽 내부 석축방법과 동일하다. 크기는 동쪽 남북 길이 1,840cm, 너비 120cm이며 남쪽 동서 잔존 710cm, 남북 너비 150cm이다.

1호 건물지는 동헌 추정지의 동쪽에 치우쳐 담장과 나란하게 연결되고 있어 행각 건물지로 추정되며 남쪽의 출입시설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에는 객사 추정지가 있고 동쪽에 동문으로 연결되는 주 출입시설이 확인된 곳으로 외부에서 출입하여 동헌터로 향하는 곳에 건물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담장

사진 22. 2구역 1호 건물지 담장 전경

2) 축대 및 보도시설

축대는 동헌 건물을 동쪽, 남쪽을 감싸는 것으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남쪽 축대는 동서 방향으로 얇은 판석을 이용하여 최대 16단으로 수직으로 쌓다가 상부로 약간 내경하게 축조하였다. 후면에는 판석이나 할석재로 뒤채움 보강하였고 크기는 1,820cm 너비 180cm이다. 축대는 서쪽은 기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 석재를 쌓아올렸으며 동쪽은 사면지형으로 다짐 퇴적과 동시에 축대를 조성하고 있다. 축대 동쪽에는 동쪽 담장 축조 시 일부가 훼손되어 있어 보충한 것으로 시간차를 반영하고 있다.

보도시설은 축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도시설 남쪽에 객사터가 위치하고 있어 두 건물을 연결하는 길로 판단된다. 석축은 양쪽에 대형 석재를 1단 놓고 내부는 할석과 토사를 이용하여 일정 높이를 맞추고 있다. 잔존 크기는 길이 300cm, 너비 180cm이다. 축대 남쪽 하단에는 동서 석열이 보도 석축까지 약 650cm 정도 잔존하는데 축대보다는 후행하고 있다. 서쪽 축대는 남쪽 축대에 꺾여 ‘ㄱ’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축조방법은 남쪽 축대의 동쪽과 동일하며 9~10단 높이로 축조하였다. 잔존 크기는 남북 잔존 길이 300cm, 동서 길이 180cm이다.





사진 23. 2구역 남쪽·서쪽 축대 및 보도시설 전경

동쪽 축대는 건물지 담장에서 동쪽으로 150cm 정도 이격되어 있고 3단 높이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2단의 계단형 축대가 남아 있다. 축조방법은 하부에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할석을 2~3단으로 들어서 수직으로 횡적하고 상부를 흙이나 석재로 다짐하는 방식이다. 크기는 잔존 길이 1,450cm, 최대 높이는 300cm이다. 각 단의 이격은 95cm, 단 높이 차는 약 100cm이다.

3) 출입시설

출입시설은 북쪽에 동서 방향으로 확인된다. 출입시설은 舊 면사무소 조성과정에 확대 축조한 것으로 현재 잔존 크기는 동서 길이 850cm, 남북 너비 400cm, 높이 80~120cm이다. 출입시설은 외부에서 내부로 나팔형 형태이며 축조는 북쪽은 기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였고 남쪽은 이전 건물지나 담장 및 축대를 절개하고 석축하였다. 석재는 북쪽은 현재 2단 잔존하는데 기반암 위에 대형 할석을 횡적하고 뒤에는 작은 할석과 토사로 보강한 것으로 동헌 건물과 관련하여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쪽은 최대 4단이 잔존하며 작은 할석을 횡 또는 사선으로 수직으로 쌓고 서쪽에는 초석도 이용한 것으로 근대에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시설은 최초로 조선시대에 축조하며 사용되다가 근대에 와서 남쪽으로 공간을 넓힌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양쪽 석축 아래에 배수구가 확인되고 있다.



사진 24. 2구역 동쪽 축대 전경





사진 25. 2구역 출입시설 조사 후 전경

4) 일제 강점기 건물지

일제 강점기 건물지는 서쪽 조사 경계지점에서 확인된다. 외곽으로 방형 형태로 구들장이 확인되며 북쪽으로는 배연구가 있다. 고래는 방형으로 하부에 단면 U형의 도랑을 수직으로 굴착 한 후 판석재를 덮고 점토로 밀봉 하였다. 내부에는 재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었다. 남쪽에는 방형의 초석이 있으며 동쪽에는 조선시대 건물지 사이에 일제 기와를 이용한 적십이 확인된다. 크기는 동서 잔존 길이 150cm, 남북 300cm, 고래 너비 30cm이다.





사진 26. 2구역 일제강점기 유구 전경

■ 3구역

3구역은 조사구역의 동쪽 평탄지에 해당하며 건물지 4동, 기단석축 2기, 석축 1기, 소성유구 1기, 보도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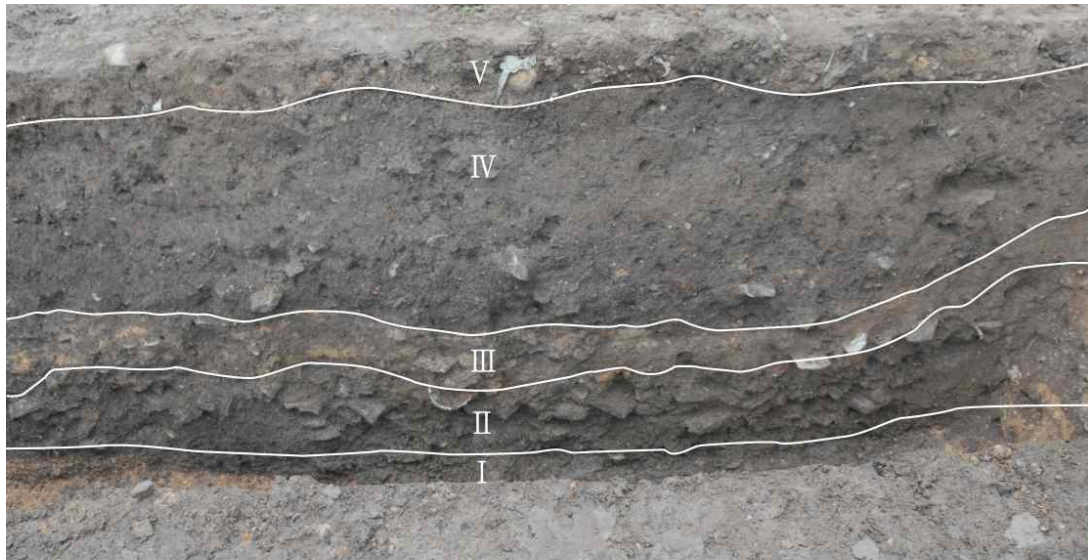
1. 기준층위

3구역 기준 층위는 원지형이 남아 있는 남동쪽 동서 층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남동쪽은 가장 두꺼운 퇴적층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낮아지는 곳이며 근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평탄화 된 곳이다.

층위를 살펴보면 1구역의 중심토층 퇴적양상과 유사하다. 건물 조성을 위한 대지 조성 층(I 층, II 층)- 건물 조성 층(III 층)- 건물폐기 후 자연퇴적(IV 층) 순이다. 토층은 3구역 지형이 북서-남동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건물축조를 위한 대지 조성 퇴적층이 남쪽으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기단을 조성하고 기반토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2. 유구 내용

3구역 건물지는 기단석열을 중심으로 건물 2동이 중복되어 있으며 1호 건물지가 2호 건물지 보다 후행한다. 3·4호 건물지는 동쪽 조사경계 지점에 맞닿아 있다. 1호 건물지는 현재 동서 방향으로 기단, 초석(적심)이 확인되며 2호 건물지는 동향의 남북 방향으로 적심, 난방시설, 기단, 보도 등이 확인되고 있다. 남쪽에는 후행하는 동서 방향의 석축이 확인된다.



I 층 : (암적갈색사질점토층)
대지 조성층
II 층 : (암회색사질점토층)
대지 조성층
(점토, 할석, 유물포함 퇴적)
III 층 : (명갈색사질점토층)
건물지 조성층

IV 층 : (암갈색사질점토층)
자연 퇴적층
V 층 : (명갈회색사질점토층)
표토

사진 27. 3구역 기준토층 (북서-남동)

1)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는 3구역의 북쪽에 해당하며 현재 계단이나 주차장 공사로 인해 교란되어 있다. 건물은 동서 4칸 구조가 잔존하며 크기는 동서 길이 1,100cm이고 적심 간격은 230cm이다. 초석(적심)은 덩벙 초석이며 2개가 잔존하고, 적심은 원형이며 직경 80~140cm 크기로 굴착하여 할석과 점토를 함께 충전하였다. 상면에는 초석까지 너비 50cm 정도로 백색니질토-황색점토-암갈색사질토를 교차로 다짐처리 하였다. 적심은 원형으로 굴착하고 석재와 점토를 충전하였다. 내부에서는 자기류, 기와류 외에도 상평통보, 토제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28. 3구역 조사 후 전경 (직상방향)



1호 건물 전경



1호 건물 초석



동전(상평통보)



토제 어망추



1호 건물지 다짐

사진 29. 3구역 1호 건물지 전경 및 출토유물

2) 2호 건물지

2호 건물지는 적심, 기단석 방향으로 보아 ㄱ자 형태의 동향 건물로 현재 남북 정면 4칸, 동서 측면 2칸 구조이다. 북쪽 정면 1칸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면에 퇴칸이 있는 구조이다. 건물지 크기는 잔존 남북 길이 1,090cm, 동서 길이 440~610cm이다. 적심은 원형이며 직경 100~140cm 크기로 굴착하여 크기가 다른 할석과 흙을 함께 충전하였다. 적심 간격은 200~220cm이다. 북서쪽에는 난방시설이 동서방향으로 확인되는데 아궁이-고래-배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아궁이는 타원형으로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화구석재는 훼손되었고 고래는 4줄 고래로 판석을 세우고 위에 구들장을 놓은 형태이다. 배연부는 고래부 중앙 끝에 암키와를 깔아 놓았다. 아궁이부터 고래까지의 길이는 300cm 정도이며 고래 길이 260cm, 너비 140cm, 깊이 17cm이다. 기단석열은 ㄱ자 형태로 확인되는데 남북으로 현재 1,450cm가 확인되며 동쪽으로 약 510cm 정도 확

인된다. 남북 석축은 2단으로 횡적하여 수직으로 쌓고 상면은 다짐처리 하였다. 동서 석축은 할석을 1~2단 높이로 수직으로 축조하였다. 남북 기단석축 중앙부에는 보도시설이 있는데 크기는 동서 길이 180cm, 남북 너비 130cm 정도이다. 2구역의 남쪽 보도



직상방향



건물지



적심



보도시설



명문와



남북 기단



동서 기단



아궁이



고래



배연

사진 30. 3구역 2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



3호 건물지



4호 건물지

사진 31. 3구역 3·4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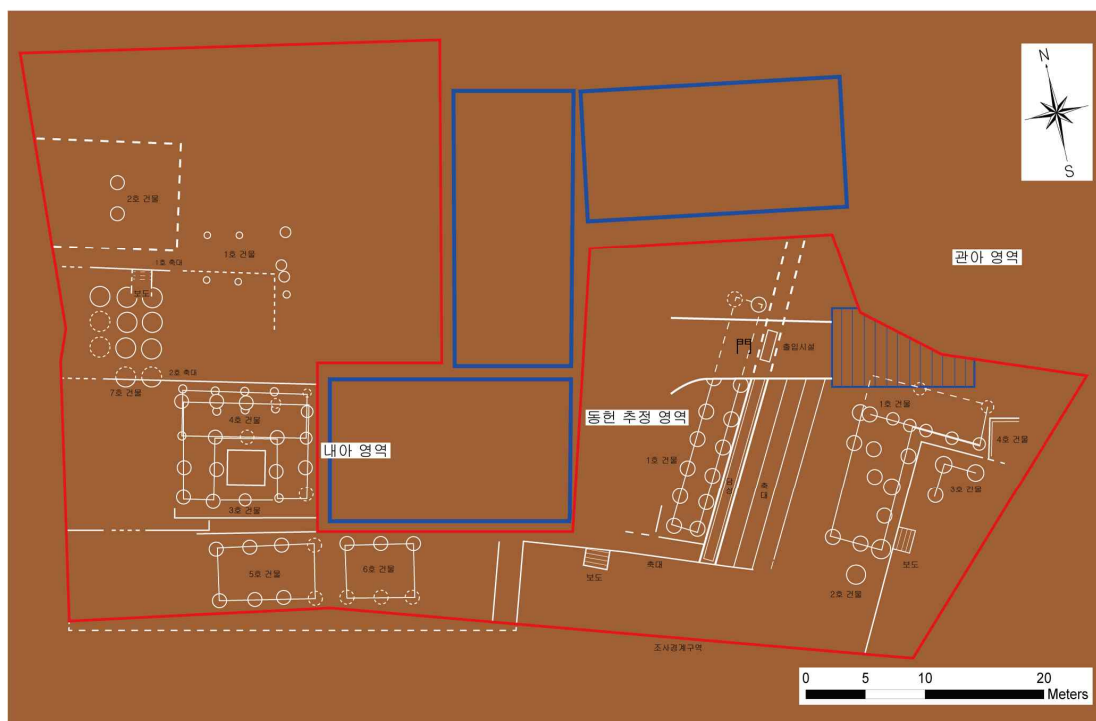
축조 방법과 유사하게 양쪽에 대형 할석을 놓고 중앙부에 석재나 점토를 채우고 있다.

3) 3·4호 건물지

3·4호 건물지는 동쪽 조사지역 경계지점에서 확인된다. 3호 건물지는 2호 기반석축 전면에 위치하는데 대지조성층 위에 축조되어 있다. 현재 1칸 구조가 확인되며 2호 건물지의 적심열과 일치하지만 적심 간격이 290cm로 1·2호 보다 60cm 정도 차이가 난다. 4호 건물지는 적심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배연구가 확인되어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배연구 크기는 동서 길이 190cm, 남북 길이 370cm 정도이다.

4. 유적 경관

전라우수영 내아, 동헌 추정터에 대한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심 관아터에 대한 경관을 추정해 보았다. 자료는 발굴된 건물지 구조, 출토유물, 고지도 등을 기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도면 7 . 전라우수영 중심 관아터 추정 모식도

서쪽 1구역에는 총 7동의 건물지가 독립 또는 중복·확장되어 확인된다. 가장 선행하는 건물지는 4·7호 건물지로 가장 하층에 위치하며 출토유물은 분청자를 포함한 경기관요 백자, 지방 관요 백자 등이 출토되고 있다. 건물은 4호 기준으로 정면 4칸, 측면 잔존 2칸이며 기단, 난방시설, 고맥이, 암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적심은 기반 내지는 퇴적토를 굴착하여 작은 할석을 정연하게 채워 넣고 그 위에 덩벙 초석을 놓은 형태이다. 시기는 건물 구조, 문헌기록, 출토유물 등을 볼 때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대 까지이다.

이후 7호 건물지는 폐기되고 2·3호 건물지가 중창 내지는 새로이 축조된다. 2호 건물지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기단, 보도, 축대 등으로 아래 건물지와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3호는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4호 이후에 건물 규모가 남쪽으로 확대되어 중창되고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 구조이며 남쪽 중앙부에 중정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주향은 자연지형에 맞게 남형건물이지만 주 출입은 동쪽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 등은 출토유물 상에서 16세기 전·중반으로 건물지의 중창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5·6호 1구역에서 가장 후행하는 것으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주요 건물의 부속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17세기를 중심으로 18세기 유물까지 출토되고 있다. 대지조성 다짐토에서 출토된 상평통보가 17세기경에 주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서쪽 공간에서는 가장 늦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2구역은 축대나 담장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남쪽으로 연결되는 행각건물, 보도시설, 출입시설 등이 확인되고 있다. 축대는 하층에서 16세기대 백자가 주로 출토되며 행각건물지에서는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어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행각 건물지는 추정 동헌터의 외곽으로 연결되는 출입시설 등과 연결되고 있어 외부로 향하는 출입문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쪽 출입시설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우수영 관아터로 연결된 주 출입로로 판단된다.

3구역은 4동의 건물지가 확인되는데 2호가 1호보다 선행하는 건물지이며 ㄱ자 형태의 동향 건물이다. 2호 출토유물은 16세기대 백자가 중심이며 명문와 1점은 1구역 출토품과 동일하여 1구역 초축 단계에 함께 건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2호 건물지는 백자, 상평통보 연대로 보아 가장 후행하는 19세기가 중심이며 일제 강점기와 근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우수영 중심 관아터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경에 초축되고 16세기 중반경에 중창 과정을 거쳐 17~18세기에 부속 건물이 추가로 신축된다. 3구역은 가장 후행하는 건물지가 조성되어 19세기대 까지 존속하였고 일제 강점기와 근대에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점차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관아터 건물지는 발굴조사 결과 문헌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건물지 성격은 고지도와 비교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고지에는 객사 북쪽에 내아-동헌이 표기되어 있고 석축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2개 표기되어 있다. 발굴조사 모식도에는 동쪽과 남쪽이 석축과 담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동쪽에 출입구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된다. 그리고 두 건물군은 객사 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된 것으로 1구역은 내아 영역, 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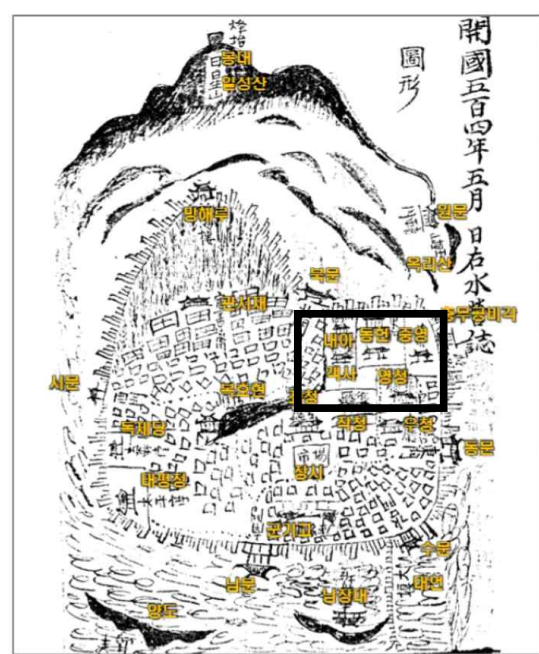
은 동헌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된다.



비변사방안지도 (1793년)



전라우수영지 (1895년 3월)



전라우수영지 (1895년 5월)

도면 8. 전라우수영 고지도 내 중심 관아터

5. 조사성과

해남 전라우수영 내아터 및 동헌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라우수영 관아터에 대한 첫 발굴조사로 건물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 축조 과정은 사면부는 대지조성 과정을 거쳐 생활면을 구축하고 건물의 기초인 축대, 기단, 초석(적심) 등을 만들고 내부에 난방시설, 암거 등을 축조한 것이 파악되어 관아건물의 구조 및 형태 등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관아 건물은 중층 확장 또는 신축 등 시대를 달리하여 축조한 경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축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경에 축대나 담장으로 구획하고 1구역과 3구역을 중심으로 건물 축조가 시작되며 이후 중층 및 신축이 16~17세기경에 1구역 남쪽에서 추가된다. 가장 후행 건물지는 3역의 2호가 해당하며 이후 일제강점기와 근대 시설 등으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전라우수영 초축 단계부터 근대까지의 건물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관아터로 진입하는 출입시설 위치 및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유물은 자기류, 기와류, 막새류, 명문와, 금속유물, 동물뼈, 패각류 등이 출토되었다. 자기류 중 백자는 경기도와 지방 관요에서 출토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공급과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6세기대 중앙 관요 백자에만 ‘右水’ 명이 음각되어 있어 우수영 지명 연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기와류는 명문와, 막새, 특수기와 등이 출토되는데 제작시기, 제작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문와는 상평통보와 함께 제작자(관청)과 연대를 파악할 수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서쪽 구역은 내아 영역, 동쪽은 동헌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동헌 영역의 일부 유구가 조사경계 밖으로 확대되고 있어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관아의 전모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 관아터 전체에 대한 경관을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2. 옥석유리			
3. 토도	암키와, 수키와, 자기 등	15점 / 22상자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15점 / 22상자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일련 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크기 (cm)			사진 번호	비고
					기 고	구 경	저 경		
			재 질	시 대	(길이)	(폭)	(두께)		
1	암키와	1	토도	조선	48.2	32.0	2.2	1	
2	암키와	1	토도	조선	(21.7)	(14.0)	(1.7)	2	명문
3	수키와	1	토도	조선	42.5	20.0	5.7	3	
4	암막새	1	토도	조선	(13.0)	(15.0)	3.5	4	명문
5	수막새	1	토도	조선	15.5	14.8	4.6	5	명문
6	자기	1	토도	조선	(2.1)		5.7	6	분청사기
7	자기	1	토도	조선	(9.3)	(9.3)	0.5	7	분청사기
8	자기	1	토도	조선	4.7	16.1	6.3	8	연질백자
9	자기	1	토도	조선	(3.1)		5.8	9	‘右水’ 명
10	자기	1	토도	조선	7.3	14.8	5.7	10	
11	자기	1	토도	조선	7.2	13.7	7.2	11	청화백자
12	어망추	4	토도	조선	8.3	3.7	3.7	12	
	소 계	12건 / 15점							

2. 출토유물 사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참고유물



조사단 의견서

- 조 사 명 :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 착 수 일 : 2020. 06. 01.
- 완 료 일 : 2020. 11. 10.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은 연차 발굴조사를 통해 전라우수영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정비·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다. 금번 발굴조사는 전라우수영의 중심 관아터 부지로 조사면적 2,452㎡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서쪽지역은 내아영역이며 동쪽은 동헌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공간은 축대나 담장 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헌 영역에는 남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출입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동헌 영역 바깥에는 또 다른 관아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아영역에는 바다가 조망되는 능선 일부를 절개·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외곽으로 계단식 축대와 담장을 둘러 건물의 위엄을 극대화하였다. 초축 건물 2동(4,7호)은 난방시설 있는 구조로 15세기 후반에 큰 규모로 축조되며 16~17세기에는 대대적인 중창(重創)과정을 통해 4동이 추가로 확대된다. 중심 건물은 4칸 규모의 口자 형태로 남쪽 중앙에 마당(中庭)을 갖추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주변 건물(5,6호)은 난방시설 없이 주초석만 확인되고 있어 창고건물과 같은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동헌 영역은 현재 건물지 일부와 축대, 진출입로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잔존 5칸 이상으로 남쪽의 보도시설에서 북쪽의 주 건물로 향하는 행각 건물로 판단된다. 축대는 점판암재로 높고 웅장하게 축조하였으며 동쪽은 계단식으로 높게 하여 타 영역과 구분하였다. 출입시설은 우수영 내의 도로망 중심축으로 한곳은 남쪽 객사 추정지로, 다른 곳은 동문으로 향하는 시설 동쪽 출입시설이 중심 관아터로 진입하는 출입구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수백 점이 출토되는데 분청 및 백자, 명문와, 동전, 기와 등을 통해 건물의 연대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 백자는 분청사기와 함께 경기 관요품이 출토되는데 특히 우수(右水)명은 관요백자에만 새겨져 있다. 섬진강 일대의 지방관요 출토품도 공반되고 있어 여러 지역에서 우수영으로 공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와류는 막새류, 연호명 명문와(崇禎...六十...1688년 제작) 등이 함께 출토됨으로써 건물의 사용 및 축조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해남 전라우수영 중심 관아터 발굴조사를 통해 내아 영역의 건물 위치 및 구조, 축조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동헌 영역의 출입시설, 일부 건물, 축대 등을 통해 동헌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몇 차례의 학술자문회의에서 지적되었듯이 동헌 영역의 일부 유구가 근대 건축물이 있는 조사경계 밖으로 확대되고 있어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 관아의 전모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발굴조사 구역은 유구 훼손 방지 및 안전조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복토 조치하여 추후 정비 복원 시 까지 임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첨 부 : 1. 유적 임시 보호 조치 전경 끝.

(재) 대한문화재연구원장





첨부 1. 유적 임시 보호 조치 전경